

3학년 2학기 받아쓰기

3학년 이름()

- * 방법: 1.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내어 세 번 이상 읽기
 2. (띄어쓰기 지키며) 안 보고 써 보기
 3. 틀린 낱말 익히기
 4. 틀린 낱말 다시 안 보고 써 보기

1회 (' '와 '과', '하'와 '개')
1. 와 꽃게를 그렸어요.
2. 이 숙제는 네가 한 거니?
3. 응, 네가 직접 했어.
4. 참새와 제비를 봤어요.
5. 지우개 사러 가자.
6. 우리가 도와 드리자.
7. 하얀 도화지에 그려요.
8. 돋보기로 자세히 봐요.
9. 화내지 마세요.
10. 비가 내리더니 어느새 그쳤다.

2회 (모음 'ㅏ'와 '과', '하'와 '개')
1. 대나무가 쪽쪽 자라고 있어요.
2. 매미와 해바라기
3. 가로와 세로
4. 가재와 게
5. 만나서 모래성을 쌓자.
6. 베개를 베고 자라.
7. 과자 가게에 갔어요.
8. 여보세요? 누구세요?
9. 넥타이를 매고 가방을 메요.
10. 이 음료수는 제가 마실게요.

3회 (된소리로 발음되는 낱말)
1. 밝이 추우니 옷을 많이 입고 가.
2.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왔어.
3. 개울가에서 울챙이를 만났다.
4. 국수와 라면을 무척 좋아해.
5. 먼저 야채를 볶고 양념을 넣자.
6. 꾸중하셨어요.
7. 각자 할 일을 마치고 와라.
8. 배우고 싶은 악기를 선택하렴.
9. 신발을 신고 끈을 묶자.
10. 사진 액자를 깨뜨렸어요.

4회 (모음 '거'와 '기', '기'와 '이')
1. 바위 뒤에서 갑자기 튀어 나왔어.
2. 한여름의 더위와 싸워요.
3. 달빛도 없어서 너무 어두워.
4. 가위를 나눠 주고
5. 커마개는 더워요.
6. 뭐가 위대하니?
7. 기저귀가 부끄러워?
8. 주사위는 거기에 튀라.
9. 다람쥐가 커여워요.
10. 마커가 무서워요.

5회 (모음 '거'와 '기', '기'와 '이')
1. 침대에 누워서 뭐하니?
2. 플슌에 사마귀가 가벼워요.
3. 바퀴가 무거워요.
4. 수학 문제가 참 쉬웠어.
5. 헤어친 친구가 그리웠어요.
6. 결과가 많이 아쉬웠어요.
7. 먼저 화해하는 게 어려웠어요.
8. 휘파람 소리가 아름다워요.
9. 친구를 위로해 줬어요.
10. 무대 위에서 춤을 췄어요.

6회 (모음 '하'와 '하', '개'와 '개')
1. 시계를 공부했어요.
2. 공공장소에서 차례를 지켜요.
3.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
4. 의자에 앉은 사람이 누나예요.
5. 친구들과 얘기해요.
6.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7.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8. 폐품을 재활용하자.
9. 덧셈과 뺄셈을 배웠어요.
10. 예술적인 감성을 키우자.

7회 (모음 '이'와 '내' 구별하기)
1. 돼지고기와 쇠고기
2. 이제 후회하니?
3. 기회를 주세요.
4. 우리 회사가 최고야.
5. 왜 그러셨어요?
6. 괴물이 무서워요.
7. 기분이 상쾌해요.
8. 외국에 사는 친구들
9. 나는 외롭지 않아요.
10.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8회 (모음 '이'와 '내' 구별하기)
1. 방아쇠를 당겨요.
2. 외양간의 송아지
3.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4.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5. 할머니를 뵈어서 기뻐요.
6. 우리 집에 왜 왔니?
7. 피를 부리다.
8. 죄를 짓지 마세요.
9. 회를 먹었습니다.
10. 거짓말을 했더니 괴로웠어요.

9회 (준말 표기 - 국어활동 29쪽)
1. 많은 네가 춤을 췄다니!
2. 숙제 끝나면 내게 알려 줘.
3. 닭을 닭장에 가웠다.
4. 동생과 간식을 나눠 먹었다.
5. 도서관에서는 목소리를 낮춰.
6. 내가 분명히 봤어.
7. 우리 형은 음악가가 됐어.
8. 연필을 바꿔 써 보자.
9. 나눠 떨어지는 수
10. 친구가 여기해 줬어.

10회 (' ' 'ㅈ' '중'과 만나면 [ㅈ], [ㅊ]으로 발음됨. 국어활동 61쪽)
1. 창문을 달으니 답답하다.
2. 네가 전화를 끊자마자
3.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자.
4. 친구와 헤어져서 섭섭하다.
5. 비를 맞아서 옷이 축축해.
6. 내 동생이 씩씩하게 걸었어.
7.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8. 축축한 나뭇잎
9. 급하게 먹으면 배탈 나.
10. 네가 양보하면 좋잖아.

11회 '-(는)데'와 '-(는)데' 구별하기. 국어활동 67쪽
1. 아침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2. 내 짝꿍이 장난으로 숨겼대.
3. 비가 안 온다.
4. 오후 여섯 시까지는 도착해야 한대.
5. 가는 길인데 아직 못 대.
6. 그런데 여기에는 없대.
7. 내가 실수했는데 친구가 미안하대.
8. 배는 고프는데 입맛이 없대.
9. 밥을 먹었는데 배가 또 고프.
10.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대.

12회 '-(으)게' / '-(으)려고'의 바른 표기 국어활동 81,115쪽
1. 다섯 시쯤 갈게요.
2. 소풍을 가려고 도시락을 준비했다.
3. 다음 공은 내가 칠게.
4. 내가 차려고 한 공을 친구가 찼다.
5. 맛있게 잘 먹을게요.
6. 밥을 먹으려고 반찬을 꺼냈다.
7. 내일부터 일찍 일어날게요.
8. 일찍 일어나려고 다짐했는데
9. 저녁 먹고 숙제 할게요.
10.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졸리다.